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분색채화장 이미지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of Face Image of Point Make-up by demographic  
variables and preferences of the point make-up

\*진주전문대학 뷰티디자인과, 성신여자대학 의류학과  
이 연 희\* · 양 취 경

\*Dept. of Beauty Design, Jin-ju College  
Dept. of Clothing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e, Yon Hee\* · Yang, Chieu Kyung  
(2001. 10.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find out the primary element of point make-up image perception, the point make-up image perception by point make-up trend and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and age. And this study will show the preferences of the point make-up.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si-experimental study method with contents analysis method and experimental method. And content analysis is primarily based on the color trend and cosmetics colors which were suggested by a fashion magazin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gathering opinions by poll, with the model wearing different make-ups and checking the typical reactions of people.

To summarize, sex and age were found out to be influential variable to distinguish color perception abilities. This could verify that point make-up was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face image perception. Also, face make-up effect could be maximized with Natural or common color groups rather than trend-oriented color group selections. And the polled preferred Natural color group with no point make-up or Classic color group to any other color group.

**Key words:** demographic variables, Point Make-up, Perception of Face Image, preferences;  
인구통계적 변인, 부분색채화장, 얼굴이미지지각, 선호도

I. 서 론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색이 인간의 지각과정을 거쳐 심리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색채라고 한다. 인간의 지각반응에서 색채는 형태에 우선하며, 서로 다른 각 색채는 그 자체의 고유한 심리적 힘을 가짐으로서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

지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인지각이론에서 색은 가장 눈에 띄는 요소로서 개인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지각에서는 의복과 화장에 의하여 색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복과 화장이 착용자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얼굴화장은 색채로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요소이다<sup>2)</sup>.

얼굴은 개인의 신분증으로서<sup>3)</sup>, 다른 어떤 신체 부분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며<sup>4)</sup>, 얼굴인상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sup>5)</sup>. 그러므로 얼굴에 색채를 더하는 행위인 화장은 사회적 인상을 유지해 가는 수단이며<sup>6)</sup>, 특히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색채화장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이 새도우와 립스틱을 색 조합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색채화장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실험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인구구조를 밝히고, 둘째, 색채화장 및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제시하게 될 각 화장색에 대한 지각이미지 결과는 개개인의 화장색 선택 기준과 이미지연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얼굴 화장색의 이미지 지각차이와 선호도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색채심리, 얼굴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지각 그리고 지각자 변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색채 심리

심리학적 색채연구는 대상물에 비추어진 빛이 생리적 현상을 거쳐 지각되고, 일련의 지각과정에서 색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 감정 등이 심리적인 연상, 상징과 관련되어 인간의 의식활동을 수반하는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색채에 대한 감정적 반응효과와 관련된다.

색채는 언어로서 서술되지만, 색채에 대한 인간의 색채반응은 특성화된 감정적 힘을 가지며, 그러한 정서적 반응은 각 색채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도

는 특별한느낌이나사건 등과 관련되어 있다<sup>8)</sup>.

이미지란 한 감각대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된 모든 정보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상(像)으로서<sup>9)</sup>, 이는 곧, 속성 하나 하나에 대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색채에 대한 이미지 연상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역과 풍토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하며<sup>10)</sup>, 그 특성은 언어를 이용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일반적으로 색채에 대한 지각반응은 독립된 하나의 색채에 대한 것보다 여러 가지 색채가 배색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 대인지각이론

인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세계 안에서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이루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감각체계, 과거의 경험이나 동기가 되는 상황등이 개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각은 신체적 에너지가 경험으로 적극적인 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활동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sup>12)</sup>. 따라서 지각과정은 형, 색, 크기와 같은 표면에서 두드러진 물체의 속성을 가진 대상이 눈을 통하여 뇌로 전달됨으로써 일으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반응의 결과는 지각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특히 대인지각이라고 하며, 대인지각은 타인의 신체적, 언어적 표현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자극인 타인의 심리적 내용을 지각하는 것이다<sup>13)</sup>.

대인지각이론은 인상형성 연구에서 전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주의 이론<sup>14)</sup>, 타인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향성을 의미하는 내현성격 이론<sup>15)</sup>, 지각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에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두드러진 단서<sup>16-18)</sup>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인지각이론을 패션에 적용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1980년대 초 국내에서

도 실험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활발한 진행되어오고 있다. 즉 고애란, 강혜원<sup>17)</sup>, 김재숙<sup>18)</sup>, 이주현<sup>19)</sup>, 이은미<sup>20)</sup>, 남미우<sup>21)</sup>, 이웅휘<sup>22)</sup>, 이현화, 박찬부<sup>23)</sup>, 이해숙<sup>24)</sup> 등은 연구를 통하여 형태주의 이론, 내현성격 이론, 두드러진 단서 등의 이론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도출시킴으로써 대인지각이론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3. 얼굴화장과 이미지 지각

인상형성은 인상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때 필요한 정보나 단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외모가 된다<sup>25)</sup>. 사람의 외모는 신체적 특징과 외모장식으로 결정되며<sup>26)</sup>, 개인적 특징, 문화, 심리적,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sup>27)</sup>, 특히 얼굴은 사회적 인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신체 요소이다<sup>28)</sup>.

한편 화장은 얼굴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 기능을 가짐으로서 의복과 함께 사용되는 자기 장식법이며, 특히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인상의 중심이다<sup>29)</sup>.

화장과 관련한 인상형성 연구에서 화장을 한 얼굴이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보다 더 좋은 인상을 형성하고<sup>30)</sup>, 입술화장이 첫인상형성에 있어서 여성의 성격판단에 영향을 주며<sup>31)</sup>, 화장의 유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 추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sup>32)</sup>. 그러므로 외모에서 얼굴의 색채화장은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영보<sup>33)</sup>, 이선경<sup>34)</sup>은 의복 및 얼굴 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배성 등의 차원에서 얼굴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화장이 외모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외모에서 의복과 얼굴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자 변인에 대하여 강혜원<sup>35)</sup>은 이미지 지각에서 같은 자극물이라도 지각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성격 등의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남수진<sup>36)</sup>은 의복 색채감성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간 색채 감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큰 요인이 기후, 지형, 지리, 문화적 이유 등이 라고 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가 이미지 지각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모델에게 화장시킨 얼굴사진의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 측정을 위한 색 선정은 2001년 봄 여름 유행예측색의 테마별 트렌드에 의한 네 가지 화장색채와 한 가지의 한국인이 선호하는 화장색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패션정보업체인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제안하는 2001년 S/S 여성 패션의 테마별 유행예측색에서 4종류의 색채군과, 서울과 진주의 화장품 소매상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근거로 얼굴화장에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1종류의 아이세도우와 립스틱 색채군을 추출하였다.

유행예측색 선정 동기는 현대 화장이 패션의 한 장르로서 유행지향성이 강하고 특히 아이 세도우와 립스틱을 중심으로 한 색은 화장품에서의 색채 유행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20대 여성 얼굴의 눈과 입술을 5가지 색채군에 의한 화장으로 변화시켜 이를 트렌드 1 ~ 5로 하였으며, 눈과 입술화장 없이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만 바른 얼굴사진을 트렌드 6으로 정하였다. (그림 1 참조)

트렌드 1(자극물 1)은 인터 선프래닝의 2001 S/S 여성패션 테마 중, 샌디노매드(Sandy Nomad)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주황과 연두를 인접색조화 시켜 자연적인 느낌을 나타내므로 내추럴(Natural)로 명명하였다. 트렌드 2(자극물 2)는 패션테마 아도르(Ardor)에 의하여, 자주색을 깊고 강한 색조로서 조화시켜 여성적이고 선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므로 로맨틱(Romantic)으로 정하였다. 트렌드 3(자극물 3)은 패션테마 에스닉 플래전트(Ethnic Pleasant)의 이미지를 살려 연지, 노랑, 연두 3색상을 삼각조화 시킴으로서 화려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게 하였으므로 고풍스(Gorgeous)



자극물 1(Natural)



자극물 2(Romantic)



자극물 3(Gorgeous)



자극물 4(Up to date)



자극물 5(Classic)



자극물 6(Basic)

## [그림 1] 자극물

라 칭하였다. 트렌드 4(자극물 4)는 패션테마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Inside-Out, Upside-Down)에 근거하여 2000년 가장 유행했던 펄과 분홍, 녹색계열을 조화시켜 현대적인 이미지를 이끌어 내게 함으로써 그 명칭을 업 투 데이트(Up to Date)로 하였다. 트렌드 5(자극물 5)는 전통화장색임과 동시에 현재 한국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색인 깊은 빨강의 입술과 갈색조의 눈화장으로서, 이는 클래식(Classic)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트렌드 6(자극물 6)은 색채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얼굴이므로 그 명칭을 베이직(Basic)으로 정하였다.

자극물의 제작은 모델의 머리, 의복 등 얼굴화장이 미치지 않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통제시키

고, 기초 색채화장을 한 후 테마별 유행 예측색에 따라 화장을 하였다.

얼굴화장이 완성되면 카메라(기종: Mamiya 645)로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색채 근접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현상하여, 이를 자극물 1번에서 6번으로 결정하였다. 자극물의 색채명은 실용한국색표집<sup>33)</sup>의 색채명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의미미분 척도용 형용사쌍은 자유기술식 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용어<sup>34-36)</sup> 등으로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34개를 선정, 7점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오른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의미에 더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즉 “예쁜—예쁘지 않은”의 문항은 점수

가 낮을수록 예쁜 것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묻는 인구통계적 변인 4문항을 포함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를 연령, 거주지, 직업을 고려하여 편의표집하였으며, 이들은 조사원이 제시하는 자극물 하나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연구시 피험자가 하나씩의 자극물에 응답하면 여러 개의 자극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각각 다른 자극물 1개에 대해서만 답하게 하였다. 즉 강남에 거주지를 두고 전 문직을 가진 20대 남자 6명에게 자극물 1번에서 6번 중, 1개만을 보게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4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38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성별에서 남자 190명(49.2%), 여자 196명(50.8%), 연령에서 20대 139명(36.0%), 30대 119명(49.2%), 40·50대 128명(33.2%)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분석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은 Varimax회전,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를 이용하였다. 또한 색채화장 및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MCA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 요인 분석

색채화장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분척도 34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의 내용을 검토, 5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요인 1은 매력성, 요인 2는 정숙성, 요인 3은 온화함, 요인 4는 독특성, 요인 5는 젊음이라 명명하며, 이들 5개의 요인은 요인의 문

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요인으로 추출된 5개 차원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조사하였다. 즉 요인 1의 매력성은 .88, 요인 2의 정숙성은 .85, 요인 3의 온화함은 .85, 요인 4의 독특성은 .77, 요인 5의 젊음은 .72로 모두 .72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 2. 성별과 색채화장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색채화장 트렌드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적 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5개의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 요인은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주효과를 보면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라 지성, 온화함, 독특성, 성숙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5개의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매력성 요인은 두 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와 독립변인 각각에 의한 주효과가 없었다.

지성요인은 트렌드에서 주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MCA 평균의 차에서 살펴보면 베이직이 가장 지성적이고 로맨틱이 가장 지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주효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지각자를 성별로 분리하여 트렌드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성 요인은 남녀 모두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베이직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지성적인 화장으로 지각되었고, 로맨틱은 가장 지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성 요인에 대한 트렌드의 차이를 지각함에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분화된 그룹으로 분류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색채 분별력이 뚜렷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표 1〉 색채화장 트렌드와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분석 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지성 F	온화함 F	독특성 F	성숙성 F						
2원 변량 분석	트렌드(A)	5	1.46	14.37**	6.18**	5.27**	9.11**						
	성별(B)	1	1.54	2.06	.63	.50	2.28						
	A×B	8	1.24	.75	.23	1.94	.89						
	집단내 오차	374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트렌드	내추럴	67	-.05		-.39		-.08		.11		-.04	
		로맨틱	62	.10		.48		.24		-.04		-.35	
		고저스	69	.20		.41		.04		-.18		-.24	
		업 투 데이트	63	.05		.28		.34		-.22		-.09	
		클래식	63	-.14	.14	-.14	.40	.12	.28	-.21	.25	-.26	.33
		베이직	62	-.18		-.66		-.67		.56		.78	
	성별	남	190	-.06		-.07		.05		-.04		.08	
		여	196	.06	.06	.07	.07	-.05	.05	.04	.04	-.08	.07

\*\*p&lt;.01

〈표 2〉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n=남, 여)

요인	트렌드 성별	내추럴	로맨틱 (n=34, 33)	고저스 (n=29, 33)	업 투 데이트 (n=34, 35)	클래식 (n=33, 30)	베이직 (n=31, 32)	F (n=29, 33)
		매력성	남	4.04	3.77	4.18	3.98	3.73
	여	3.82	4.36	4.19	4.09	3.96	3.81	1.65
지성	남	3.95(b)	4.63(a)	4.49(a)	4.59(a)	4.13(ab)	3.65(b)	5.22**
	여	3.90(c)	4.95(a)	4.96(a)	4.61(ab)	4.23(bc)	3.66(d)	9.92**
온화함	남	4.16(ab)	4.41(a)	4.30(a)	4.65(a)	4.27(a)	3.65(b)	2.57*
	여	4.08(a)	4.45(a)	4.18(a)	4.41(a)	4.35(a)	3.42(b)	4.03**
독특성	남	4.24(b)	3.71(b)	4.11(b)	3.96(b)	3.85(b)	4.80(a)	4.19**
	여	4.28(abc)	4.46(ab)	3.83(c)	3.90(bc)	4.02(bc)	4.62(a)	2.96*
성숙성	남	3.57(b)	3.16(b)	3.70(b)	3.39(b)	3.49(b)	4.25(a)	3.65**
	여	3.37(b)	3.16(b)	3.28(b)	3.46(b)	3.01(b)	4.32(a)	6.54**

\*p&lt;.05, \*\*p&lt;.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lt;.05)

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간의 색채 판단력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野村順一(1996)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온화함 요인은 트렌드에서 주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MCA 평균의 차에서 살펴보면 베이직이 가장 온화하고 업 투 데이트가 가장 온화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2〉에서 남녀 모두 색채를 가미한 화장보다 색 기운을 띄지 않은 화장에 대하여 온화하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독특성 요인은 트렌드에서 주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MCA 평균의 차에서 살펴보면 업 투 데이트가 가장 독특하게 평가되었으며, 베이직이 가장 독특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2〉에서 남녀 집단 모두 베이직을 가장 독특하지 않은 얼굴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색채화장이 여성 얼굴의 개성과 독특성을 표현하는데 영향력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숙성 요인은 트렌드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MCA 평균의 차에서 살펴보면 베이직이 가장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로맨틱이 가장 성숙

한 얼굴로 지각되었다. <표 2>에서도 남녀 모두 베이직을 가장 성숙하지 않은 얼굴로 평가하여 유채색 기미를 띄고 있는 얼굴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성숙하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녀 모두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을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하지 않은 얼굴로 지각하였다. 이들 3가지 요인에서 성별간의 차이는 없었다.

### 3. 연령과 색채화장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색채화장 트렌드와 연령에 따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서 MC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편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차이는 <표 1>의 결과와 중복되므로 <표 3>에서 그 설명을 생략하였다.

<표 3>을 보면 5개의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요인은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독특성 요인에서 있었다(그림 2).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 매력성, 지성, 온화함, 성숙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매력성 요인은 주효과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MCA 평균의 차에 의하면 전체적인 자극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40·50대가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지성 요인은 주효과에서 트렌드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MCA의 평균의 차에 의하면 40·50대가 동일한 자극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더 지성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즉 베이직을 가장 지성적으로 지각하였고, 로맨틱을 지성적이지 않은 화장으로 평가하였다.

지각자를 연령별로 분리하여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지성 요인은 3개의 연령집단에서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베이직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지성적으로 평가되어졌으며, 30대가 다른 집단보다 색채화장 트렌드를 비교적 더 세분화해서 지각하였다.

온화함 요인은 <표 3>의 주효과에서 트렌드와 연령에서 각각 색채화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한 자극물에 대하여 40·50대가 가장 온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자세한 차이를 <표

<표 3> 색채화장 트렌드와 연령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분석 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지성 F		온화함 F		독특성 F		성숙성 F	
2원 변량 분석	트렌드(A)		5	1.62		14.41**		5.83**		5.35**		9.77**	
	연령(B)		2	9.68**		6.36**		5.23**		2.01		23.43**	
	A×B		8	1.31		1.02		.58		2.21*		.68	
	집단내 오차		368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트렌드	내추럴	67	-.05		-.39		-.08		.11		-.04	
		로맨틱	62	.10		.48		.24		-.04		-.35	
		고저스	69	.20		.41		.04		-.18		-.24	
		업투데이트	63	.05		.28		.34		-.22		-.09	
		클래식	63	-.14		-.14		.12		-.21		-.26	
		베이직	62	-.19	.14	-.66	.40	-.67	.28	.56	.25	.78	.33
	연령	20대	139	.09		.11		.14		-.04		-.40	
		30대	119	.21		.15		.13		.14		-.01	
		40·50대	128	.29	.22	-.26	.17	-.27	.17	-.09	.09	.45	.32

\*p<.05, \*\*p<.01

〈표 4〉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n=20대, 30대, 40·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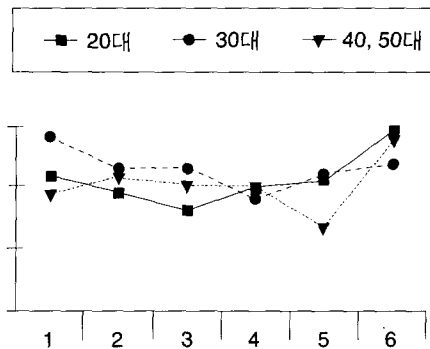
요인	트렌드 연령	내추럴	로맨틱	고저스	업 투 데이트	클래식	베이직	F
		(n=24, 19, 24)	(n=22, 18 22)	(n=25, 21 23)	(n=24, 19 20)	(n=22, 24 17)	(n=22, 18 22)	
매력성	20대	4.01	4.12	4.20	4.44	3.96	3.65	1.67
	30대	4.33	4.55	4.47	3.76	3.95	4.16	2.05
	40·50대	3.54	3.66	3.91	3.81	3.55	3.65	.54
지성	20대	4.05(b)	5.03(a)	4.89(a)	4.89(a)	4.06(b)	3.56(b)	8.45**
	30대	4.22(bc)	5.13(a)	4.65(ab)	4.61(abc)	4.30(bc)	3.94(c)	3.26**
	40·50대	3.57(b)	4.31(a)	4.63(a)	4.23(a)	4.17(a)	3.52(b)	5.19**
온화함	20대	4.23(a)	4.61(a)	4.38(a)	4.94(a)	4.41(a)	3.39(b)	4.91**
	30대	4.18	4.51	4.34	4.45	4.42	3.99	.64
	40·50대	3.96	4.20	3.99	4.13	4.02	3.29	1.78
독특성	20대	4.19(b)	3.91(b)	3.62(b)	3.98(b)	4.11(b)	4.91(a)	3.90**
	30대	4.80	4.29	4.31	3.81	4.20	4.37	2.21
	40·50대	3.89(bc)	4.16(ab)	4.04(bc)	3.99(bc)	3.34(c)	4.78(a)	3.59**
성숙성	20대	3.01(b)	2.75(b)	3.18(b)	2.73(b)	2.94(b)	4.08(a)	5.61**
	30대	3.47(b)	3.18(b)	3.33(b)	3.61(b)	3.21(b)	4.28(a)	3.34**
	40·50대	3.92(ab)	3.55(b)	3.96(ab)	4.09(ab)	3.69(b)	4.50(a)	2.34*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4)에서 보면, 온화함 요인은 20대 집단에서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대는 베이직한 화장을 다른 화장색 보다 더 온화하게 지각하였다.

독특성 요인의 주효과는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림 2]는 독특성 요인에 대한 트렌드와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에서 연령별 3집단 모두는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즉, 20대는 베이직 화장을 가장 독특하지 않은 얼굴로 지각하였으며, 고저스 화장을 가장 독특한 얼굴로 평가하였다. 30대는 업 투 데이트 화장을 가장 독특하다고 지각하였고, 내추럴 화장을 독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40·50대에게 베이직 화장은 가장 독특하지 않고, 클래식 화장은 가장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숙성 요인에 대한 주효과에서 트렌드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MCA 평균의 차에 의하면 40·50대가 동일한 자극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표 4>에서 성숙성 요인은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 30, 40·50대 집단 모두 베이직 화장을 가장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그림 2] 독특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연령과 색채화장 트렌드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지각하여, 대부분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 대하여 어리고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대는 베이직을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하지 않게, 내추럴과 클래식을 지성적인 얼굴로 평가하였다. 30대는 베이직화장을 가장 지성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40·50대는 내추럴 화장을 지성적으로, 클래식을 가장 독특



한 것으로, 베이직화장을 지성적이고 성숙하지 않게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20대의 경우 유행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색채에 대한 감각도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25세까지 높아졌다가 65세 경부터는 차차 쇠퇴한다는 野村順一의<sup>39)</sup> 이론을 지지한다.

〈표 5〉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항목별 이미지 지각의 차이

(n=386)

트렌드	내추럴 (n=67)	로맨틱 (n=62)	고즈스 (n=69)	업 투 데이트 (n=63)	클래식 (n=63)	베이직 (n=62)	F
매력있는—매력없는	4.15(ab)	4.50(a)	4.42(a)	4.49(a)	4.02(ab)	3.89(b)	2.38*
정숙한—정숙하지 못한	3.72(c)	4.76(a)	4.64(ab)	4.60(ab)	4.22(b)	3.23(d)	12.89**
여성적인—남성적인	3.27(bc)	3.47(abc)	3.74(a)	3.57(ab)	3.24(bc)	3.05(c)	2.44*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R)	3.24(bcd)	2.97(cd)	3.49(bc)	3.68(b)	2.84(d)	4.27(a)	7.24**
시원한—답답한	4.00	4.10	4.19	3.57	4.21	3.73	1.79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3.81	3.89	3.94	3.59	3.46	4.06	1.43
예쁜—예쁘지 않은	4.06	4.29	4.42	4.37	4.02	3.74	2.09
안전한—안전하지 않은	3.69(b)	4.66(a)	4.51(a)	4.51(a)	4.29(a)	3.21(b)	9.23**
산뜻한—우중충한	4.03	4.06	4.09	4.44	3.90	3.68	2.02
세련된—촌스러운	4.03(b)	4.61(a)	4.77(a)	4.33(ab)	3.84(b)	4.05(b)	4.20**
밝은—어두운	3.87	3.31	3.67	3.59	3.79	3.98	1.60
고상한—천박한	4.21(b)	4.92(a)	4.84(a)	4.76(a)	4.49(ab)	3.48(c)	10.95**
능력 있는—무능력한	3.73(b)	4.48(a)	4.55(a)	4.10(ab)	3.83(b)	3.96(b)	4.51**
보기 좋은—보기 싫은	3.85(bc)	4.69(a)	4.55(a)	4.17(ab)	4.00(bc)	3.47(c)	5.90**
화사한—화사하지 않은	4.15	3.73	3.83	3.89	3.71	4.39	2.00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3.78(cd)	4.92(a)	4.90(a)	4.52(ab)	4.16(bc)	3.58(d)	10.64**
따뜻한—따뜻하지 않은	4.06(b)	4.08(b)	4.23(ab)	4.68(a)	4.13(b)	3.87(b)	2.30*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4.19(b)	4.74(a)	4.70(a)	4.76(a)	4.05(b)	3.85(b)	5.24**
참신한—노련한(R)	3.63(ab)	3.21(b)	3.52(b)	3.41(b)	3.65(ab)	4.10(a)	3.14**
강렬한—무난한	4.21(b)	4.00(b)	4.13(b)	3.83(b)	3.79(b)	5.02(a)	4.75**
무서운—무섭지 않은(R)	3.64(a)	4.02(a)	3.62(a)	3.83(a)	3.98(a)	2.85(b)	4.19**
수줍은—수줍지 않은	4.75(a)	5.00(a)	4.75(a)	4.67(a)	5.05(a)	4.06(b)	3.46**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4.64(a)	4.47(a)	4.38(ab)	4.37(ab)	3.86(b)	4.90(a)	3.44**
독특한—평범한	4.34(ab)	4.29(ab)	3.84(b)	3.84(b)	4.19(ab)	4.60(a)	2.44*
사랑스러운—사랑스럽지 않은	4.75(a)	4.92(a)	4.45(a)	4.73(a)	4.51(a)	3.79(b)	4.89**
청순한—요염한(R)	3.75(b)	3.06(c)	3.36(bc)	3.40(bc)	3.38(bc)	4.94(a)	14.16**
부드러운—딱딱한	4.40(a)	4.40(a)	4.36(a)	4.65(a)	4.43(a)	3.52(b)	4.80**
진보적인—보수적인	4.03(b)	4.19(ab)	3.91(b)	3.83(b)	4.17(ab)	4.66(a)	2.96*
발랄한—점잖은	4.06(ab)	3.60(b)	3.58(b)	3.81(b)	3.67(b)	4.35(a)	3.34**
어색한—자연스런(R)	4.01	4.26	4.45	4.38	4.13	3.74	1.70
귀여운—성숙한(R)	3.27(b)	3.39(ab)	3.57(ab)	3.21(b)	3.11(b)	3.84(a)	2.29*
온화한—사나운	3.90(bc)	4.34(ab)	4.30(ab)	4.54(a)	4.38(ab)	3.55(c)	4.17**
편안한—불편한	3.97(bc)	4.84(a)	4.46(ab)	4.78(a)	4.43(ab)	3.58(c)	6.92**
중후한—경박한	4.16(b)	5.13(a)	4.88(a)	4.92(a)	4.24(b)	4.26(b)	7.31**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R)은 반대로 해석되는 문항

〈표 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색채화장 트렌드 선호도 차이 (n=386)

인구통계적 변인		트렌드	내추럴	로맨틱	고저스	업 투 데이트	클래식	베이직	F
전체			2.60(bc)	2.26(c)	2.25(c)	2.46(bc)	2.71(ab)	2.95(a)	5.47**
성별	남		2.68	2.45	2.32	2.55	2.74	2.86	1.32
	여		2.52(bc)	2.09(c)	2.17(c)	2.37(bc)	2.69(ab)	3.03(a)	4.88**
연령	20대		2.46(b)	2.23(b)	2.12(b)	2.29(b)	2.64(ab)	3.14(a)	3.85**
	30대		2.32	1.89	2.10	2.47	2.63	2.50	1.57
	40·50대		2.96	2.59	2.52	2.65	2.94	3.14	1.72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4. 색채화장에 따른 항목별 이미지 지각의 차이

색채화장 트렌드에 따른 각 요인별 항목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추럴은 능력있는, 중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로맨틱은 매력 없는, 정숙하지 못한, 천박한, 지적이지 않은, 노련한, 요염한, 경박한 등으로 평가되었다. 고저스는 촌스러운, 보기 싫은, 지적이지 않은 등으로, 업 투 데이트는 딱딱한, 진보적인, 경박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클래식은 나이 들어 보이는, 세련된, 능력있는, 강렬한, 섹시한, 성숙한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베이직 화장은 매력있는, 정숙한, 어려보이는, 얌전한, 지적인, 따뜻한, 우아한, 참신한, 수줍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색채화장 선호도의 차이

성별, 연령에 따른 색채화장 트렌드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6), 여자는 베이직을 가장 좋아하며, 로맨틱과 고저스 화장을 싫어하였다. 20대는 베이직 화장을 가장 좋아하고 클래식 화장을 가장 싫어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직 화장을 가장 선호한 반면 로맨틱과 고저스 화장은 좋아하지 않는 화장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성인 남녀는 얼굴화장에서 강한 색조

와 색상 대비를 싫어하고, 20대 초반의 여성에 대한 얼굴 이미지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색채 이미지 지각에 대한 내용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도출되어 매력성, 정숙성, 온화함, 독특성, 젊음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별과 트렌드에 따른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의 차이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주효과에서 트렌드는 정숙성, 온화함, 독특성, 젊음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을 가장 정숙하고, 온화하며, 젊게 지각하였다.

셋째, 내추럴 화장은 능력있고 중후한 등으로, 로맨틱은 매력 없고, 정숙하지 못하고 천박하며 요염한 등으로, 고저스는 촌스럽고 지적이지 않은 등으로, 업 투 데이트는 따뜻하거나 우아하지 않고 진보적인 등으로, 클래식은 세련된, 능력있는, 강렬한, 섹시한, 성숙한, 등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베이직 화장은 매력있는, 정숙한, 여성적인, 어려보이는, 얌전한, 보기좋은, 지적인, 평범한, 보수적인, 젊음 등의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넷째,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 명의 20대 여성 얼굴에 6종류의 색채화장을 시킨 자극물 중, 부분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색채 지각 능력을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었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로맨틱 화장과 연지색 입술에 대한 오감(惡感)은 피부색과 화장색과의 조화문제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색은 따뜻함을 나타내는 회노랑색<sup>(4)</sup>으로서, 이러한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색은, 빨강계열에서도 찬빛을 띄는 자주, 연지, 핑크보다, 따뜻한 빛을 띄는 빨강과 주황이 더 어울린다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강한 색상 대비로 이루어진 고저스 화장에 대한 오감은 채도가 높은 색상과 배색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장색채에 따라 얼굴 이미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색채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장행동에 있어서 피부색과 화장색채간의 조화, 부분화장색채간에 이루어지는 배색감각은 얼굴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를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로 한정하였고, 사진의 화장색이 실제 색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극물이 20대의 연령대만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로 확대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지각대상자를 보다 확대하여 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장은 의복과 관련이 많으므로 유행의복과 그에 따른 색채화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혜원(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25, 43-52, 82.
- 2) Jouhar, A. J. & Graham J. A.(1985).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93-99.
- 3) 조용진(2000).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 34.
- 4) Graham, J. A., and Jouhar, A. J(1980). Cosmetics considered in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 77-101.
- 5) Hassin R. and Trope Y.(2000). Facing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837-852.
- 6) Thomas F. C. & Diane. W. C.(1982). Women's Use of Cosmetics : Psychosocial Correlat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4, 1-14.
- 7) 大坊郁夫(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スピ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11-16.
- 8) Walker M.(1991). *The Power of Color*. New York: Avery Publishing Group Inc., 21.
- 9) 김재범(1989). 한국광고 대행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다차원적 접근. *광고연구*, 겨울호, 163-164.
- 10) 박은주(1996).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10, 232.
- 11) 권은숙(1995).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서울: 웅진출판사, 17.
- 12) Hastorf, A. H., Schneider, D. J. & Polefka, J.(1970). *Person Perception*. CA: Addison-Wesley Pub. Co., 1-17.
- 13) 정양은(1981).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177-190.
- 14)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247-248.
- 15) 정철수(1997).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44.
- 16)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88-89.
- 17) 고애란 · 강혜원(1992).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속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3), 181-196.
- 18) 김재숙(1990).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 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19)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0) 이은미(1992). 남성정장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1) 남미우(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2) 이용휘(1997). 스커트의 폭, 길이 및 소매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23) 이현화 ·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24) 이혜숙(1997).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25) Buss, A. H.(1985).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25-130.
- 26) Argyle, M. and Cook, M.(1975). *Gaze and Mutual Gaz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 41., Graham, J. A. & Jouhar, A. J.(1981)에서 재인용.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199-210.
- 27)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 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28) Hamid, P.(1972).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279-289.
- 29) McKeachie, W.(1952). Lipstick as Determiner of First Impressions of Personalty: An Experiment for the Psychology Cour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241-244.
- 30) Jouhar, A. J. & Graham J. A.(1985).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93-99.
- 31) 이선경(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32) 남수진(1999). 대구 전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복색채 감성구조에 관한 연구: 감성공학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33) 실용 한국표준 색표집(1991). 서울: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 34)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35) 이미연(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36)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37) 허영화(1985). 색채이미지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38) Kobayashi, S.(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7.
- 39) 野村順-(1996). 商品色彩論. 東京: 千倉書房, 4, 36, 93-98.
- 40) FASHION NEWS WEEK, 전통 환경의 기본색으로 살색 중시: 한국인의 피부색과 활용방법, 2000년 2월 17일, 6.